

## 亞細亞 農業系 大學間 協力の 必要性 및 展望

朴 良 門 教授  
( 濟州大學校 農科大學 )

世界人口의 60% 以上이 亞細亞地域에 살고 있고, 大部分이 農業國이며, 天然資源이 그렇게 不足한 것도 아닌데 飢餓에 허덕이며 貧困(povert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國民이 많은 것이 現實이다.

東南亞地域을 中心으로 (1) 産業別 人口 構成 (2) 宗教 (3) 天然資源 등의 現實을 살펴보고 亞細亞의 未來農業 發展方向을 展望해 보고자 한다.

### (1) 産業別 人口構成 (1980)

그 나라의 産業이 어떤 方向으로 發展되어 가느냐 하는 것은 國家의 장래와 國民所得에 밀접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第1次 産業人口가 72%인 印度의 1人當 國民所得은 150 달러, 67%인 인도네시아는 304 달러, 52%인 말레이시아는 714 달러, 38%인 한국은 1,187 달러, 11%인 日本은 7,153 달러로 1次 産業人口가 많은 나라는 國民所得이 낮고, 2次, 3次 産業人口가 많은 나라는 越等히 所得이 높음을 알 수 있다.

東南亞國家의 國民所得이 낮은 原因은 2次, 3次産業으로 發展하지 못하고 1次産業人口가 많은 때문에 생각된다.

### (2) 世界의 宗教別 國民所得

世界 125 個國의 1970 年代 宗教別 1人當 國民所得을 보면 대단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宗教別로 보면 기독교國이 2,129 달러로 第1位였고, 회람정교國(870 달러), 천주교國(860

달러), 회교國 (302 달러), 유교國 (254 달러), 불교國 (190 달러), 원시종교國 (170 달러)의 順序였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東南亞國家들 中에 유교國 (4) 및 불교國 (12)이 많다는 것과 國民所得이 낮은 것과는 전혀 關係가 없다고 排除할 수 없다.

### (3) 天然資源 (農業分野)

말레이시아를 例로 들어보면 바나나의 原產地일 뿐만 아니라 生고무 生産量 世界 1位이고, palm oil, 熱帶作物, 在來種 닭, 觀賞植物, 淡水魚 등이 豊富한 資源富國이고,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베트남 등도 資源國으로 알려져 있다.

### (4) 農業系 大學間 協力の 必要性

國家의 産業이 發展하자면 倫理나 宗教에 기초를 둔 高級技術人力과 資源이 豊富해야 되므로 다음의 式이 成立된다.

$$Y = f ( X_1 \cdot X_2 )$$

$$X_1 = f ( T \cdot E )$$

技術과 資源 어느 한 쪽이 不足해도 安定된 國家라고 볼 수 없다.

韓國, 日本, 대만 등 技術水準이 높은 나라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베트남 등 資源國들과의 相互有益을 위해서는 亞細亞 農業系 大學間의 積極的인 協力を 必要로 한다.

1972年 8個國 17個 農科大學 代表가 필리핀 바쿠이오市에 모여서 創立한 아시아 농과 대학 연합회(AAACU)가 1988년에는 13個國 44個 正會員大學을 거느리게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活動이 아세아國家間의 農業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亞細亞地域에서 日本이 앞에 나서기는 歷史的으로 그렇고, 대만은 中공의 눈치를 살피야 되기 때문에 現在의 國力이나 農業技術로 보아서 韓國의 農科大學이 中心이 되어 亞細亞의 農業을 이끌어 가려고 努力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